

# 일본문화 '키워드' 찾는 노력 다양해진다

## 체험기류의 계몽적 단순 소개 뛰어넘는 본격 일본론 출판 활기

“열려라 참깨.” 일본문화형의 키워드를 찾는 저작들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나온 책에는 일본을 “극장국가” “법인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조명해본 것이 있다. 일본 문화의 특성을 “집단주의” “武의 문화”로 규정하는 책도 있다. 방법론적으로 어느 한 개념이나 이념형을 설정하여 일본역사와 사회와의 적합성을 탐구하는 책들이다. “구체로부터 초월하여 그 구체의 진경을 거꾸로 획득”할 것. 이러한 책들의 모토는 그것이다. 일본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저류에 흐르는 ‘그 무엇’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 ‘전체를 포함하는 부분’ 찾기 작업들

우리나라 대형서점 일본관련서 서가에는 백수십 종의 책들이 꽂혀 있다. 그중 전문적 학술서를 제외하고 일본인론 내지 일본론 관련 책자는 2, 30여종 정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출간된 일본·일본인론 서적은 100여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0년, 광복 45주년을 기념해 모 대형서점에서 마련한 일본관련서 특설코너에 전시된 그같은 책들이 70여종이었다는 기사(「조선일보」 90년 8월 16일자)를 참조하자면 그렇다. “주관적 감상만 70여종”이란 제하의 기사였다.

근래에 들어서도 일본·일본인론 관련책자들이 줄을 이어 출간되고 있다. 그중 언론사의 주일특파원들이 쓴 견문기·체험기 등이 주류를 이룬다. 「벗꽃은 오래 피지 않는다」(지명관, 동아일보사), 「일본인의 저력을 찾아서 I, II」(오수태, 왕문사), 「깊신 신고 사쿠라를 보아 하니」 「千의 얼굴 일본·일본·일본」(조양욱, 청한), 「일본기행」(윤명철, 온누리), 「동경특파원보고서」(문창재, 한국일보사)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저력과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대개 경제대국 일본의 장점을 배우자는 계몽서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한·일 ‘양국문화 비교론’이라 할 만한 저술들도 많이 출간된다. 「한·일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이어령 외, 신구미디어), 「한·일 민족의 원형」(김용운, 평민사), 「일본인과 한국인,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도요다 저, 황일권 역, 동학사), 「한국 속의 일본」(이진희, 동화출판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체험적 일본론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한일교섭사 혹은 관계사라는 학술서의 모양을 갖춘 저작들이다. 그밖에도 ‘知日인사’들의 기행문

이나 견문기 등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견문기·체험기·인상기·탐방기 등으로 빼곡한 일본관련 서가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일본역사를 일관지하는 책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그러나 일본의 뱃속을 꽤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끊임없는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명저로는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손꼽힌다. 千의 얼굴 일본을 두 개의 얼굴로써 모두 보여주는 역작이란 평을 듣는 저서이다. 이후의 일본에 관한 논고는 모두 이 책을 의식하지 않고는 쓸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본문화론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화와 칼」은 “학문의 연구에서 그 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보다 엄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평을 듣는다. 일본땅에 발 한 짝 들여놓은 적이 없지만 저자는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에 대해 꿰뚫는다. ‘방법론의 승리’인 셈이다. 이 책의 키워드는 제목이 일러준다. ‘국화’와 ‘칼’이란 상징어가 그것이다. “국화를 가꾸는 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탐미주의를 숭배하는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게 또한 일본인”이라는 것. “칼도 국화와 함께 한 그림의 일부”라고 묘사한다. 그것은 문화인류학적 용어로는 “수치의 인식에 놓인 문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론으로 이야기되는 저서이다. 롤랑 바르트의 「일본론」과 조르쥬 플레르의 「플로베르론」에서 착상한 ‘축소지향’ 개념으로 일본문화라는 거대한 텍스트의 정곡을 찌러 일본인들도 깊이 수긍케 한 당당한 일본론으로 평가받았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인은 커다란 물건이면 무엇이든 축소시킨다. 하이쿠, 식탁을 축소한 나무도시락, 분재, 트랜지스터, 탁상용 전자계산기, 워크맨 등등. 영국에서 우산을 수습했지만, 접는 우산을 만들어 영국에 수출한 것이 일본이라는 것.

지난 88년에 출간된 「확대지향의 일본인」(대한교과서주식회사)은 위 두 저서에 대한 ‘반론서’이다.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인 저자 박준희씨는 “확대지향”을 키워드로 삼는다.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영토확장으로부터 최근의 무역흑자까지를 예로 들며 그같은 일본의 문화특성을 설명하는 데 ‘수치’와 ‘축소’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국화와 칼」에서



신인류의 국화와 칼. 검도를 통해 섬세한 예절과 사무라이 정신을 배우는 일본학생의 모습.

일본인의 심성으로 꼽은 ‘수치’는 “확대지향의 下僕”이고,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축소’란 “억압된 확대지향”이라고 지적한다.

### 엄밀한 방법론으로 감정을 과학적 처리

「극장국가 일본」(일곱)에서 저자인 야노 토오루(교토대 교수)는 “일본인은 천성적으로 모방의 버릇이 있다”고 자기분석한다. 이를 증명키 위해 미국인학자 기아츠의 “극장국가” 개념을 고대일본으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사회·문화 형태에 대입시켜본다. 예컨대 “제1기 극장국가 시대”라 명명한 고대일본의 경우, 국가체제 기틀 마련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모방했다. 천황이라는 흥행주, 성덕태자와 후지하라 등의 연출자, 일본국민이 배우 겸 관객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명치유신 이후를 “제2기 극장국가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제3기라고 시대구분하는 저자는, 각각 서구문명과 아메리카니즘을 시나리오로 삼은 일본 역사를 개관한다.

일본인이 쓴 또하나의 일본론으로서 근자에 출간된 것으로 「법인 자본주의」(오쿠무라 히로시, 일곱)가 있다.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상인국가와 순교자국가의 갈등」(대한교과서)에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제목과 같은 두 문화간의 갈등상으로서 분석한다. 한편, 「일본인과 집단주의」(하마구치 예순 외, 형설출판사)는 “일본사회의 편성원리는 집단주의”라

는 서구인의 시각에 대한 일본인의 해명서 혹은 답변서이다. 일본문화의 특징을 “집단문화”라 규정하는 시각은 우리나라 사람의 저술에서도 보인다.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한준석, 다나)가 그것이다. “武의 문화가 군대·군사문화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전체하에, 그러나 “국가를 단위로 한 집단문화임에는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작년 말에 출간된 「야스쿠니 신사」(노길호, 구월)에서 저자는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 일본 사회의 한 단면도를 제시한다. 천황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는 과정과 메이지 정부의 대외팽창정책의 이데올로기 형성과정의 발신지가 야스쿠니 신사였다는 것. 일본인들의 시국관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바로미터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론은 감정의 과학적 처리가 아직 미흡한 우리의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목전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저술이지만, 읽는이에 따라서는 교양서가 아닌 지피지기의 실용서일 수도 있다. 마치 「국화와 칼」이 탁월한 학술서이기도 하지만 2차대전 패전국 일본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실용적 가치를 충족시킨 것처럼.

—김중식 기자